

장용학 <日附變更線近處> 一考

윤진현*

<차례>

1. 머리말
2. 수업시대와 실존주의 수용 경로
3. <日附變更線近處>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장용학은 1955년 실존주의 경향의 소설 <요한시집>을 발표하여 문단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작가이다. 이로부터 '실존주의'적 경향은 1950년대의 문단을 지배하는 주류적 사조가 된다. 비슷한 시기에 장용학 이외에도 손창섭, 오상원, 이범선, 김성한 등 50년대 주요 작가들이 실존주의와 연관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실존주의 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하나의 실체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희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김성희는 1950년대 전후 희곡을 소재 접근 방법에 따라 사실주의와 실존주의의 두 줄기

* 인하대 강사

로 나누었다.¹⁾ 이는 사실주의와 비사실주의라는 이분법을 사용할 때에도 작품 구분의 내용에서는 사실상 유사함을 볼 수 있다.²⁾ 따라서 이 시기 희곡에서 실존주의적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1950년대 희곡의 이해에 중요한 핵심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장용학의 희곡 <日附變更線近處>를 실존주의와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장용학 연구는 소설 분야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장용학을 다루어 온 기존의 연구는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당대의 평단에서 시도한 장용학 작품에 대한 해설적인 성격의 비평문이 있다.³⁾ 둘째 비교문학적 접근으로 장용학 작품의 실존주의적 경향에 대한 연구⁴⁾이고 셋째는 장용학 소설이 가진 특수한 양식에 대한 접근 - 우화, 알레고리적인 형식 특징에 대한 연구⁵⁾

1) 김성희, 「1950년대 한국 실존주의 연구」, 『한국현대희곡연구』, 태학사, 1998, 191면.

2)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참고.

3)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 현, 「에피메니드의 역설」,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403면.

_____, 「이름 없는 세계에의 갈구」, 같은 책, 418면.

이어령, 「주제와 방법」, 같은 책, 416면.

이철범, 「소외된 인간의 비극」, 같은 책, 433면

_____, 「두가지 태도의 혼란」, 같은 책, 438면.

임현영, 「장용학론 - 아나키스트의 환가」, 『현대문학』, 1966.3.

4)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염무웅, 「실존과 자유」,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426면.

강신경, 「장용학의 실존주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0.

김양호,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김영주, 「장용학 소설의 실존의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3.

김정근, 「샤르트르의 <구토>와 장용학의 <요한시집>」, 『비교문학』, 1996.12.

5)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동환, 「한국 전후 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 방법 연구」,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방민호,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김건우, 「장용학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등이다. 이들은 모두 장용학 문학을 해명하는데 꼭 필요한 측면들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의 종합적 성찰은 장용학 문학의 전체적 조망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50년대의 문학사적 이해의 증추가 될 것이다. 이는 각 부분의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이룩될 터이다.

그러나 현재 작품 연구의 기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작가 연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작가가 자신을 전혀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장용학의 전기적 측면을 미흡하나마 살피면서 작가 세계가 실존주의와 연관되는 경로를 추적해 보고 이를 토대로 희곡 <日附變更線近處>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日附變更線近處>는 소설 <원형의 전설>의 '원형'이라 할 만큼 유사한 사건과 인물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한시집>에서 제시된 실존주의적 '자유'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50년대 희곡 연구 분야와 장용학 작가 연구분야 양면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작품이다.

현재 <日附變更線近處>를 실존주의와 연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김성희의 「1950년대 한국 실존주의 희곡 연구」가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으로 인해 삶이 물질적·정신적 기반을 송두리채 파괴당한 우리 전후 사회는 그러한 압도적인 상황에 내던져진 정신의 공황 상태에서 자신을 지켜줄 어떤 정신적 지주를 필요로 했다. 전후 지식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소외나 고립, 인생의 우연성 및 부조리성, 절망, 불안 등은 바로 실존주의 문학이 그리고 있던 상황과 그대로 일치했다. 당시 전쟁이 만들어낸 폐허, 이유없이 죽어간 사람들, 삶의 기반의 파괴로 점철된 현실은 곧 실존주의의 인간 존재의 개념인 소외나 절망, 불안의식과 동질성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후문학에서 '실존주의 문학'이란 용어는 짜르트르나 까뮈 등 프랑스 작가들과 같은 개념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당시의 수용 양상을 보면 실존주의가 불안과 위기의식을 자각한 인간의 정신,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랄, 휴머니즘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실존문학'과

구별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⁶⁾

기존 연구 성과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이상의 논지는 '이는 프랑스 실존주의의 본령과는 거리가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윗글의 지적대로 당대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대안을 찾던 암중 모색의 시기이다. 즉 '정신의 공황 상태에서 자신을 지켜줄 어떤 정신적 지주'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 인들이 보여준 실존주의에의 경사는 실존(주의)문학이 그려내고 있는 현실 상황의 일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대안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이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 지향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깊은 충격을 받은 장용학이 보여준 실존주의적 경향이 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는 다른 것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제약하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이에 이상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장용학의 수업시대에 주목하여 실존주의에의 경사가 발생하는 바탕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장용학의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2. 수업시대와 실존주의 수용 경로

장용학은 1914년 4월 25일 함북(咸北) 부령(富寧)에서 태어났다.⁷⁾

-
- 6) 김성희, 「1950년대 한국 실존주의 희곡 연구」, 『한국현대희곡연구』, 태학사, 1998, 194~196면.
- 7) 장용학과 직접 인터뷰한 서원동의 확인에 따르면 장용학은 1914년 생으로 97년 현재 여든 네 살로 밝혔다고 한다.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1921년 생 설은 호적의 기록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이에 장용학 본인의 확인에 따라 1914년 생을 취한다. 현재 장용학은 외부와의 모든 교류를 끊고 은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묘한 생애 사실의 공개를 기대한다.

1940년 경성(鏡城) 공립 중학을 졸업하고 1942년 와세다(早稻田) 대학 상과에 입학하였고 1944년 학병으로 입대, 참전하였고 1945년 종전 후 귀국한다.⁸⁾ 해방 후 청진여중의 교사로 잠깐 재직하다가 1947년 월남하였고 처녀작 <肉囚>탈고 (1955년 발표)를 기점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용학 개인의 이력이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매우 인색한 작가인 장용학의 생애와 수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주목할 만한 자료로 『현대문학』(1956. 1.)에 실린 <나의 작가 수업>이 있다.

일제 때에도 문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연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략) 해방 다음 다음 해 문학을 하겠다고 월남 상경하여 우선 도서관을 찾았다. (중략) 나는 다시 힘을 내어 이백원인가 주고 조선어사전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로부터 친척집 이층에서 무위도식하면서 낱말공부를 시작했다. (중략) 한마디 한마디 사전을 뒤지며 거의 이개월 걸려 쓴 것이 <肉囚>였다. 그 탈고 일자는 상경한지 일년이 되는 구월 십사일이었다. 결국 소설을 썼지만 월남할 때는 희곡을 쓰려고 했다. (중략) 작가가 된 사람에게는 무심코 한 독서도 작가 수업에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내가 소설을 耽讀한 것은 중학사학년이 되던 때까지였지만 탐독이라는 말이 외람해질 것만을 읽었다. 菊池, 亂歩, 峯太郎, 直木 같은 것은 그래도 고상한 편에 속한다. 그런 따위를 일본에 주문까지 해가면서 읽었다. 평균 이삼일에 한 권은 읽었을 것

서원동, 「<요한시집>에서 <하여가행>까지-장용학과의 만남, 『21세기문학』, 1997. 가을 참고.

- 8)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940년 중학을 졸업한 후 1942년 와세다에 입학할 때까지 2년 간의 행적이다. 서원동에 의하면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와세다대학 한국동창회에서 1942년에서 44년까지의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아출판사에서 1995년 출판한 장용학 작품집 『원형의 전설』에 수록된 화보에는 1941년과 1943년의 사진 두 장이 실려 있다. 만약 단순한 출판사의 오석이 아니라면 이 사진에 대한 작가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다. 그런책이 아니라면 자랑도 되겠지만 하여간 학교 공부는 하지않고 낮에는 운동, 밤에는 소설 읽기 이것이 나의 중학 생활의 전부였다. 사 오학년에는 『改造』, 『中央公論』 같은 것에 흥미를 느꼈다. 이것은 조금 뽐낼 수가 있었다. 시집이라든가 고상한 문학서적을 끼고 다니는 문학생 들은 있었지만 그런 잡지를 보는 학생은 없었다. 대학 시절에는 딱딱한 책에 쏟렸다. 철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문학가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헛된 꿈이었는데도 모른다.⁹⁾

이상의 인용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사건을 통해서 어휘공부를 하였다는 것이고 중학시절 일본의 대중소설과 『改造』, 『中央公論』 등을 탐독 하였다는 것이다. 스스로 작가의 독서 경험은 무심코 읽은 것이라 해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거론한 만큼 기쿠치 간(菊池寛),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亂歩), 야마나카 미네타로(山中峯太郎),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 등의 영향은 언급에 그칠 수 없는 측면이 있다.¹⁰⁾ 이들을 읽은 것에 대해 ‘탐독이라는 말이 외람하다’고 한 것은 이들의 작품 성향이 통속적이라는 것을 후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래도 고상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들의 영향이 장용학에게는 실재적인 것이었음을 밝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기쿠치 간의 대표적 단편 <원한을 넘어서>¹¹⁾는 젊은 날의 간통, 살인

9) 장용학, <나의 작가 수업>, 『현대문학』, 1956.1, 154~156면 참고.

10) 기쿠치 간(菊池寛) : 1920년 통속 소설 <진주부인>을 발표, 문필활동 시작, 『문예춘추』, 창간. 이쿠타가와 상과 나오키 상을 제정, 문단을 조종했다. 종전 후 전쟁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亂歩) : 탐정소설 작가, <황금가면>, <D 비탈길의 살인 사건> 등의 작품 등이 있다. 일본 탐정 소설의 기초를 수립했다.

야마나카 미네타로(山中峯太郎) : 대중적인 아동문학 작가, 전쟁 중에는 국책 문학 발표, 전후 전쟁과 관련하여 추방령을 받은 6인중 1인이다.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 : 『문예춘추』의 실질적인 배후 조종, 만주사변 후부터 파시스트임을 자임하였고 국책소설을 발표하였다. 사후에 나오키상이 제정되어 대중문학 작가들이 중요한 관문이 되었다.

등의 죄악을 참회하며 승려가 된 이치쿠로가 속죄의 방편으로 인명이 상하는 험한 나무 대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절벽을 관통하는 동굴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혼자서 20 여년을 한결같이 애쓰는 내용이다. 이같은 동굴의 모티브는 <요한시집>의 토끼가 바깥세계를 찾아 좁은 통로를 비집고 올라오는 형상과 <원형의 전설>에서 굴이 무너져 죽는 이장과 안지야의 형상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 처음 햇빛에 노출된 토끼가 눈이 머는 것처럼 이치쿠로도 눈이 먼다. 여기에서 이치쿠로가 장님이 되는 것은 토끼가 갑작스러운 빛으로 장님이 되는 것과 정반대로 오래 굴 속에 있어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소재적 측면의 유사성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에도가와 란포의 탐정소설 또한 장용학 소설의 기본 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日附變更線近處>나 <원형의 전설>은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듯 주인공이 자신의 출생이 비밀을 해결해 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실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에 파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영향 관계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므로 비교문학적인 특정한 연관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양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인상은 장용학의 새로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일본 통속소설의 탐독 시기가 지나고 중학 4, 5학년부터는 『改造』와 『中央公論』에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데 이때의 『改造』와 『中央公論』의 필진에도 주목해 볼 만하다.

1933년 사노(佐野)와 나베야마(鍋山)의 전향 성명이 있을 후 많은 수의 전향자를 양산해 내며 일제 당국은 연이은 탄압을 가하여 공산주의 계열의 모든 조직을 파괴하기에 이른다. 이 때 전향의 이유에는 여러

11) 기쿠치 간, <원한을 넘어서>, 《어떤 사랑이야기》, 이경재 옮김, 소화, 1998.

가지가 있으나, 가장 주된 이유는 대중적 지지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신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의 의미를 의심하는데 있었다. 여기에는 ①일본 공산당원과 대중 의식과의 괴리 ②개인자격이 되었을 때에 일본 공산당원이 보여주는 자주적 사고의 허약성이라고 하는 두가지 측면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면에서 보자면, 전향자들은 일본 대중의 식의 공통적 지주인 '국가'의 권위와 '가(家)'에 대한 애정의 세계에 자신을 양보해 버렸다. 둘째면에서 보면 그대까지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에 대해 거론하는 일조차도 수척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개인 생활 상의 제 문제에 눈을 돌림으로써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벗어난다. 전자는 국가주의자로서 새 삶을 꾸리는 길을 택하였으며 후자는 실존주의자로서 새 삶을 꾸려가는 길을 택하였다. 전향문학은 일본 실존주의의 원형이었다.¹²⁾ 즉 이때의 일본의 사상 주류는 '국가주의'와 실존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개인 생활 상의 제 문제를 다루는 '개인주의적 태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같은 이중적 사상 주류는 이론의 양대 종합교양지라 할 수 있는 『改造』와 『中央公論』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이 두 잡지의 중심 평자로는 아오노 스에키치(靑野季吉),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스기야마 헤이스케(杉山平助),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맑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들로 전향하여 국가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인물들이다. 이 같은 국가주의적 성향의 작품을 쓴 작가들로는 사토 하루오(左藤春夫),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우에다 히로시(上田廣), 히비노 시로(日比野上朗),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작품분야에서는 '개인 생활 상의 제 문제'를 다룬 작가들이 숫적으로 훨씬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향문학의 출현과 함께 개인적인 고백과 비정치적인 성향을 특징으로 하던 일본 순문예와 대중문

12) 쿠노 오사무·쓰루미 슌스케, 『일본 근대 사상사』, 심원섭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4, 52~53면 참고.

학이 여러가지 형태로 결합·변화하여 다양한 작품들로 생산되었고 이에 새로이 '문예부흥'의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때 『改造』와 『中央公論』에 작품을 발표한 주요작가는 우노 고지(宇野浩二),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히로쓰 가즈오(廣津和郎), 니와 후미오(丹羽文雄) 등의 순문학 작가, 시마키 겐사쿠(島木健作), 다케다 린타로(武田麟太郎), 이시자카 요지로(石坂洋次郎), 다카미 준(高見順) 등의 전향소설 작가, 이즈미 코카(泉鏡花), 우치다 핫켄(内田百閒) 등의 낭만파적인 작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 이시카와 다쓰조(石川達三) 등의 풍속적인 사회소설 작가 등이 있어 이 시기 일본 문학사의 주요작가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외에 서구적인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일본 사회의 근원적 문제점을 분석한 평론가 다니키와 데쓰조(谷川徹三), 당대를 '세스토프적 불안'의 시기로 규정한 철학자 미키 기요시(三木清), 지적 서정으로 어두운 시대의 조용한 휴머니즘을 추구한 작가이며 평론가였던 아베 도모지(阿部知二), 자연주의적 실생활을 추구한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등의 평단이 포진하고 있었다.¹³⁾

이를 종합하면 평단에서는 주로 국가주의적인 국책문학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 세력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내면 탐구의 소설과 풍속 소설이 작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이 때 장용학은 『改造』와 『中央公論』을 탐독한 것이다. 여기에서 장용학은 주로 개인주의적인 후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주의적인 문학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제 후반기의 강압적인 교육상황에서 일본에

13) 이상의 일본문학사와 연관한 작가 분류는 다음을 참고하였음.

호쇼 마사오 외, 『일본 현대 문학사』, 고재석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14) 물론 이같은 개인주의적 내면 탐구의 문학이 갖는 위기, 불안, 근대의 초극과 같은 분위기는 오히려 일제가 군국주의적 동원 체제를 갖추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

대립하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적인 인식에의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대신에 국가·사회 등 모든 제도와 기존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학 시절에 쏠린 딱딱한 책 - 철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물을 때 후에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한 일본 철학자가 아베 지로(阿部次郎)인 것과 관련하여 대답하면¹⁵⁾ 한층 분명해진다. 아베 지로는 다이쇼 교양주의의 선도적 인물로서 초기 자아 탐구의 기록인 <산타로(三太郎)의 일기>는 청년층의 교양 필독서였다. 그는 독일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로 심리학을 철학이 범주로 포괄하는데 기여한 립스(T. Lipps)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인격주의적 이상주의를 제창하였다. 즉 장용학의 작품세계에 사회와 국가, 기존 제도에 의해 상처받고 억압당하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이들을 사적인 내면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 서술하는 작품 형식은 이미 이 시기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장용학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고 학병으로 입대했으며 해방기라는 엄청난 혼란의 시기에 월남하여 문학을 시작했다. 이때 장용학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결국 ‘월남 후 무능한 자식을 믿고 고생에 고생을 거듭했던 어머니가 와병 끝내 별세’¹⁶⁾하고 만다. 이렇게 어머니를 잃은 장용학은 이 후에 발표한 <日附變更線近處>, <원형의 전설>, <비인탄생>, <상립신화> 등에서 이미 어머니를 상실했거나, 상실하는 모성 결핍의 인물들을 형상화하여 그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장용학은 실존주의를 만난다. 장용학은 이때 <구토>를 읽으면서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리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15) 서원동, 앞의 글, 21면.

16) 장용학, 「실존과 <요한시집>」,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402면.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실존주의도 동란 전에 그 명칭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저 그런 것이러니 하고 관심 밖이었다. 그러던 내가 실존주의 작품을 읽게 된 것은 부산 피난지에서 1953년 봄 어떤 학생이 보수산인 나의 하코방에 사르트르의 <구토>를 들고 와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이 지금 대 유행인데 소설을 쓴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두고 갔다. 그런 설교를 받고서도 며칠 방구석에 내버려 두었다가 무료한 틈틈에 한 장 두 장 구경해 보다가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생리적으로 취미가 맞았고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을 여기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 때 내가 느낀 실존주의 문학을 식화해서 말하면 '도스토예프스키-신성(神性)=사르트르'가 되었다. 거기서 내가 배운 것은 사물을 보는 '눈'이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들어오는 것'은 '나가는 것'이 된다는 발견이다.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밖에서 볼 때 밖(세계)에서 안(집)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든지 마르크스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와 같은 유라할 것이다. 나의 희미한 철학 지식에서 보면 실존주의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철학이전의 경험론과 상통하는 데가 있어 어찌보면 철학에 있어서의 후퇴 같기도 하였다.

여하간에 나는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다 하는 발견에 흥분했다. 이 발견은 비오는 날 다방에 앉아 있다가 어떤 중년 신사가 비를 피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문득 떠올랐다. 제간에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그렇게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잠자코 있는 것이다. 모두 잠 속에 잠기고 있는데 내 홀로 눈을 뜨고 있다는 고독에 휩쓸렸다.¹⁷⁾

17) 장용학, 「실존과 <요한시집>」,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400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취미가 맞았고 안개속에서 희미하게 느끼고 있던 것을 여기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해주는 것 같았다’라는 대목이다. 장용학이 실존주의와 이처럼 생리적으로 취미가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전전(戰前)의 일본문학사의 전개와 그 바탕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느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짚어준 바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도스토예프스키-신성=짜르뜨르¹⁸⁾라는 구절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은 장용학 자신이 자주 언급했던 터이지만¹⁸⁾ 짜르뜨르를 통해서 비로소 도스토예프스키를 이해하는 틀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서 지니는 구원의 가능성이 빠진 것이 사르뜨르의 문학이라는 인식이다. 즉 《죄와 벌》에서 라스폴리니코프는 아름다운 희생의 화신으로 지극히 신성한 세계에 속해 있는 소녀의 사랑으로 구원 받는다. 이러한 신성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이 빠진 세계가 짜르뜨르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은 신성이자 구원이 아니다. 즉 도스토예프스키가 추구한 새로운 세계로의 갈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짚어 준 바’는 바로 이를 의미함인 것이다.

이는 <요한시집>에 의하면 ‘요한’-‘누혜’의 희생 이후에 전개될 ‘구세주’-‘동호’의 세계이다. 그러나 작가 자신이 밝혔듯 <요한시집>은 미완의 작품으로서 ‘자유’를 희생하고 도래할 ‘진정한 세계’의 모형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세계를 윤곽이나마 보여주는 것이 <日附變更線近處>이다.

18) 서원동, 앞의 글, 21면.

이외에도 <원형의 전설>에서 인간들의 재판 광경에 라스폴리니코프가 변호사로 설정되어 있다.

장용학, <원형의 전설>, 《원형의 전설》, 동아출판사, 1995, 207면.

3. <日附變更線近處> 분석¹⁹⁾

<日附變更線近處>는 1950년대의 몇 안되는 본격 장막극으로서 그 작품 규모나 내용에서 당대의 여러 주요 작품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상연을 전제할 때 무대와 대사, 사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무대의 경우 1막에서 집의 안과 밖을 함께 보여주어야 하고 3막에서는 김씨의 병실과 이치우의 서재를 함께 보여주면서 이층을 위한 계단과 마당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무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회전무대가 필요할 것인데 이 작품의 사건 전개에는 이러한 대형 무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같은 무대 구성은 연극 무대이기 보다는 오히려 영화적이라 할만하다. 이는 4막에서 화재가 나고 감전사 하는 사건들의 형상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사건의 전개와 유리된 관념적 대사의 남발이다. 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대사들은 극 중 한지의 저서인 '일부변경선'의 내용 소개로서 장용학의 실존주의적 시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희곡에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소설과는 달리 이 자체 내용의 전달이 용이하지 못할 뿐더러 사건 전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日附變更線近處>의 주요 사건은 한지의 아버지 찾기이다. 옛날 한씨 집안의 며슴이었던 머리 좋고 야심만만한 이치우는 주인집 딸을 강간하여 주인집의 재산을 갈취하고 주인집 딸과 결혼하여 한지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는 한지 생모에 대한 분노와 한지의 생모가 있는 한 비열한 범죄와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불어나는 재산과 함께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식으로 당시 간호부였던 김씨와 한지 생모의 살인을 공모하여 결국 한지 생모가 절식 상태에서 죽음을 맞

19) 텍스트는 다음을 사용하며 인용은 막과 페이지를 밝힌다.

장용학, <日附變更線近處>, 『현대문학』, 1959. 7-10면.

도록 강박한다. 한지 생모의 사후 이치우는 간호부 김씨와 결혼하고 한지를 호적에서 삭제하며 사실무근의 통정사건을 날조하여 한지를 내쫓고 사생아로 취급한다.²⁰⁾

사건은 이렇게 쫓겨났던 한지가 일본으로 가겠다는 계획 하에 호적을 복구하기 위해 찾아오면서 전개된다. 이치우의 정부이며 김씨의 간호부인 오혜숙은 김씨 사후에 이치우와 결혼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이치우 집안의 내막을 캐기 위해 식모 전씨, 김씨, 이치우와 차례로 대화하면서 이치우와 김씨의 과거 범죄 사실을 폭로한다.

한편 이치우의 딸 란이는 자신의 집 산판에 등산을 갔다가 이치우가 산지기로 보내 놓았던 한지를 우연히 만나고 그리움의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한지를 다시 만난다. 이들은 남매 간일 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란이는 김씨와 이치우가 이들의 남매 사실을 부인하자 한지를 남자로 생각하게 되며, 한지는 이치우가 자신을 살해하고자 오혜숙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란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이들의 결단은 이를 안 김씨가 충격으로 사실을 고백한 후 사망하고, 란이 또한 자살하며, 이치우 집에 화재가 나고 이로 인해 무기가 죽으며, 격분한 이치우가 오혜숙을 살해하고 한지에게마저 충격을 가한 후 자신도 감전사하면서 주요 인물의 전원 사망이라는 극한적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러한 사건 전개를 예비하고 암시하는 주요 무대상황이 구리 연줄을 송전선에 거는 무기의 행동이다. 무대 위에서 실제로 시작되고 전개되는 유일한 사건이니 만큼 '연줄걸기'의 행위는 인물들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1막이 시작되면 무기는 연을 만들어 구리전선으로

20) 이러한 사건 전개를 염두에 둘 때 한지를 '사생아 의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지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버지이며 그가 자신을 버리고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棄兒 의식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줄을 단다. 2막에서는 송전선에 연줄을 걸어 놓고 3막에서는 연줄을 염두에 두고 이치우가 한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4막은 연줄이 걸린 고목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란이와 이치우가 연줄에 닿아 감전사하면서 결정적인 과묵에 이른다.

그렇다면 사건 전개的主要 매개인 연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용학은 비슷한 음운을 사용하여 주어진 역할과 의미를 환기하는 상징적 명칭을 자주 사용한다. <요한시집>의 '누혜'는 누에로서 누에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비단옷-구세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인물이며 <비인탄생>에 가득한 질병(페스트)의 분위기를 규정하는 쥐와 동일시되는 '지호', 두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二長이고 <요한시집> 이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二章이기도 한 <원형의 전설>의 이장, <日附變更線近處>에서 구렁이를 잡는 이무기 등을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韓之 역시 '한국이(韓) 갈(之) 길' 혹은 갈 지(之)字가 통상적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을 의미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²¹⁾ '한국의 방황' 정도로 해석한다면 분단과 전쟁으로 중심가치와 귀속처를 상실해 버린 전후 한국 사회의 표상으로²²⁾ 적절한 상징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해석 방법으로 '연줄'을 이해한다면 '鳶 줄'은 곧 '緣줄', 끊을 수 없는 '因緣의 줄'이 될 것이다. 인연의 줄에 대한 도전은 파멸일 뿐이다. 애초부터 사당과 업구렁이에 대한 도전으로 구상된 연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송전선과 연결되어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된 연줄은 이미 사당과 업구렁이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이다.²³⁾ 즉 이 극의 등장인물은 모두

21) <원형의 전설>, 앞의 책, 239면 참고.

22) 김성희, 앞의 글.

23) 실존주의가 지닌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성을 염두에 두면 이는 현대문명의 엄청난 파괴력과 야만성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 있다.

이 하나의 연출에 걸려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출은 일종의 '상황'이다. 더 좋은 시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이들 작중인물들이 처한 시대인 것이다. 인간이 그 시대에 있어서 그 환경에 있어서 그 생존하는 지상에 있어서 절대자라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이 결단'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이다. 즉 이 상황 속에서 결단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절대자'가 되는 것이다.²⁴⁾

한지에게 주어진 선택의 방향은 '종점'과 '길가'의 두 가지이다.

한지 아들이 되어서 여기를 지나갈 것인가. 여기에 머물러 인간의 길을 취할 것인가. 이二者擇一이 저의 위치였다는 말입니다.²⁵⁾

아들이 되어 지나간다는 것은 '길가'의 의미이며 여기에 머물러 인간의 길을 취한다는 것은 '종점'의 의미이다. 즉 아들이 되어 지나간다는 것은 이치우의 호적에 복적되어 일본으로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 인간의 길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기 『神이 머리 위에 (손을 들어 머리 위를 가리키며) 있는 한 人間은 人間이 아니다. 왜냐하면 후에 난 것이 먼저 난 것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神이 죽은 戰塵 속에 人間은 탄생한다. 지금의 人間이 人間이라면 그것은 非人일 것이요, 지금의 인간이 非人이라면 그것이 人間일 것이다. 이름이야 어떻든 좋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²⁶⁾

24) 村上嘉隆,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鄭惇泳 譯, 문조사, 1993, 111~114면 참고.

25) 제 一막, 131면.

26) 제 二막, 145면.

인간에 의해 후에 생겨난 신이 인간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실존주의의 유명한 언명인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의 확인이다. 이에 따르면 고정된 주어진 인간성으로는 사물은 설명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결정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유롭고 또한 자유 그 자체인 것이다. 이 자유는 매 순간 스스로 창조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유이다.²⁷⁾ 이 자유에 의해 자신의 입법자로서 내리는 '선택'이 가능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인 것이다. 한지는 여기에서 누이와의 결혼을 선택한다.

란이 (울쌍이 되며) 오빠라구 불러두 괜찮지요?.....

한지 (벌떡) 오빠 아니다! (한 걸음 물러서며) 오빠는 죽었다! 여기 서 있는 것은 男子다! (凱歌나 울리듯) 이제 나는 너의 사랑, 너는 나의 날개, 나의 발톱이 되었다!

란이 말씀해 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지 너는 여기가 어딘지 아직 모르고 여기에 서 있다! (가서 란이의 손목을 마구잡이 연줄 앞으로 끌어다 놓고 연줄을 가리킨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여기다 葬事 지내려고 했고, 그래서 그 아들은 죽었다! (중략)

한지 나는 여기 오늘 새벽에 서 있고 너는 거기 어젯밤에 서 있다. 우리는 이(연줄을 가리키며) 日附變更線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셈이다! (중략)

한지 人間은 원래 自由다! 選擇은 네가 해라! 그 責任을 질 勇氣가 있는 한 그것이 곧 眞理다! 이것만이 眞理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어머니가 입혀 놓은 때때옷이다! 看守가 입혀놓은 罪衣服이다! 그

27)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G.노바크 편, 『실존과 혁명』, 김영숙 역, 한울, 1983, 82면.

런 것을 걸치곤 이젠 人間답게 살 수 없다! 人間은 무엇보다 威信
이 있어야 한다! 人間の 머리 위에는 아무 것도 뒤서는 안된다!
(중략)

한지 그러나 네 길은 네가 擇해라!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 (한
걸음 두 걸음 옆으로 물러선다) 홀로 天國에 갈 것인가, 나와 함
께 地獄으로 떨어질 것인가! (다시 한걸음 물러선다)
란이 嗚咽을 안고 움직인다.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앞으로 발을
옮겨 놓는다. 마치 얽은 얼음을 밟듯, 연줄 앞을 지나 한지의 앞으
로 간다.

란이 (두 팔을 밀 듯이 한지의 가슴에 얹으며 가는 소리로) 선생님의 허
가 없이는 쉼도 쉬고 싶지 않는 이 란이에요. (웃어보이려고 하지
만 웃어지지 않는다)²⁸⁾

한지와 란이는 이러한 상황과 갈등 속에서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결
단'을 한다. 이는 로강탱의 '구토'의 상태와 같은 본래적인 의식의 상태
속에서, 즉 반성적 자아에 의해 재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
존적 '결단'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더 이상 '남매 간'이라는 사회적
연관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남녀 간'이라는 대상 그 자체를
'남녀'라는 대상의 의식 그 자체로 전환하여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전환이 <구토>에서 장용학이 발견한 '시물을 보는 눈'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부빌을 떠나려 하는 로강탱과는
달리 장용학이나 한지는 '세계로부터 다방으로 나온 줄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²⁹⁾들 틈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이는 결정적으로 상황 한지와
란이가 '일부변경선'을 넘어 오늘에 살기를 결단하였다 해도 이들이 처
한 상황을 초월하는 데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의 탐구가 선행되

28) 제 四막, 211~13면.

29) 장용학, 「실존과 요한시집」, 『한국전후문제 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400면.

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도>의 로캥탱을 예로 들면 로캥탱은 안니를 찾아가 안니와의 '대화'를 통해 안니와 보낸 시간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분리되고 이는 로캥탱의 대자적 인식의 완성이다. 이를 한지에게 대입한다면 그것은 우선은 이치우가 될 것이고 둘째로는 란이와의 관계이다.

그런데 한지는 이치우와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연출로 표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이들에게 가장 큰 벽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치우'이다. 이치우는 어제를 상징하는 인물로 권력과 재물에 집착하는 기존 질서와 가치의 신봉자로 각종 산업과 이권에 개입하는 자본가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아들도 부인하고 딸의 겁탈을 사주할 정도이다. 자본의 확장을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해방 후 이땅에 정착한 천민 자본가의 전형적 형상이다. 장용학의 작품세계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인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지향이 있다. 이를 소극적이거나 1950년대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치우의 대한 본질적 탐색과 비판은 아닌 것이다.

또한 란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의 이끌림이 과연 '실존'적인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들의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이치우에 대한 반항심에 의해 자극되고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치우가 한지에게 부자 간이라는 진실을 밝혔다면 한지와 란이의 관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의 결단이 작용하고 있는 층위는 새로운 세계의 구축에 이르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신화적이다. 실존적 선택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은 한지의 경우처럼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외부의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日附變更線近處>의 주인공은 실제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나아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극렬한 자기파열의 파국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를 억압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장악하고 있는 데 따른 한계에 의한 것이다. 오히려 이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실존적 선택의 가능성을 모색한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1950년대 활동한 대부분 월남 작가의 의식 속에 깔려 있는 바로서 이들의 월남, 특히 한국전쟁 이전의 월남은 체제에 대한 이성적 분석과 비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이들은 이남 정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지로 월남한 것이 아니라 이북 정권이 보여준 정치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이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석에 따른 차악의 선택으로 월남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의식 저변에는 북한 정권에도 반대하지만 남한 사회에도 깊은 실망을 맞본 독특한 변경의식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순수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저류에 사회파 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정면으로 이끌어 낸 1960년대 문학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⁰⁾

그러나 당대 사회의 한계로 인하여 이치우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극복의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고 따라서 이들이 꿈꾸는 '오늘'의 세계는 추상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50년대적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장용학은 내면 세계로부터 그 해결책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한지와 란이가 겪는 이 치열한 고투는 바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해결방법의 모색이었다. 이들이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두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마는 것은 치열한 만큼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방법으로는 현실 세계의 극복 또는 초월이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 준 것이었으며 이같은 문학적 성과에 근거하여 4월 혁명 이후 1960년대 문학적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30) 최원식,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장작과비평사, 1997, 45면 참고.

4. 맺음말

이상으로 장용학의 수업시대와 희곡 <日附變更線近處>를 살펴 보았다.

장용학은 일본 대중소설과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양대 사상 경향으로 나뉘었던 1930년대 후반의 일본 문단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세계와 대립하는 개인주의적인 세계인식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여기에 한국 전쟁의 와중에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으면서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았다.

<日附變更線近處>에서 장용학은 억압적인 전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존주의적인 시각의 전환을 시도하여 누이와의 육체적 결합이라는 반윤리적 선택을 통해 기성 가치의 부인으로 나아가며 이는 당대 현실의 비판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후의 정치적, 사상적 한계는 구체적 사실적 비판을 제약했으며 내면 탐구를 통한 추상적인 차원의 대안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은 선택의 문제를 통해 실제적인 정치 현실로 개입해 들어간 1960년대의 현실주의 문학과 사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장용학, <日附變更線近處>, 『현대문학』, 1959. 7-10.
_____, 「나의 작가 수업」, 『현대문학』, 1956. 1.
_____, 「실존과 <오한시집>」, 《한국전후문체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_____, 《원형의 전설》, 동아출판사, 1995.

2. 단행본

- 김성희, 『한국현대회극연구』, 태학사, 1998.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6.
최원식,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7.
村上嘉隆,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鄭仲泳 역, 문조사, 1993.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역, 민음사, 1997.
구노 오사무·쓰루미 슌스케, 『일본근대사상사』, 심원섭 역, 문학과지성사, 1994.
호쇼 마사오 외, 『일본현대문학사』, 고재석 역, 문학과지성사, 1998.
G.노바크 편, 『실존과 혁명』, 김영숙 역, 한울, 1983.

3. 논문

- 강신경, 「장용학의 실존주의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0.
김 현, 「에피메니드의 역설」,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_____, 「이름 없는 세계에의 갈구」,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김건우, 「장용학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김동환, 「한국 전후 소설에 나타난 현실의 추상화 방법 연구」,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_____, 「1950년대 문학의 방법적 대상으로서의 외국문학이론」, 『한국전후문학』, 태학사, 1991.

- 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3.
- 김양호,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 김영주, 「장용학 소설의 실존의식 연구」, 고려대 석사 논문, 1993.
- 김성근, 「쾨르트의 <구토>와 장용학의 <요한시집>」, 『비교문학』, 1996. 12.
- 방민호, 「전후소설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 서원동, 「<요한시집>에서 <하어가행>까지-장용학과 만남」, 『21세기문학』, 1997. 가을.
- 엄무용, 「실존과 자유」,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 이어령, 「주제와 방법」,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 이철범, 「소외된 인간의 비극」,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 _____, 「두가지 태도의 혼란」,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81.
- 임현영, 「장용학론-아나키스트의 환가」, 『현대문학』, 1966. 3.

<Abstract>

A study on Jang Yong-Hack's drama
“The environs of the date line”(〈일부변경선근처〉)

Yoon, Jin-Hyun

This thesis has its topic as an analysis of “The environs of the date line”, which is one of Jnag Yong-Hack’s works.

Jang Yong-Hack was born at Puryung, Hamkyung Pukdo in 1914. He graduated Kyungsung public middle school in 1940 and went to Japan to enter the Waseda University. He joined the military service as a student soldier and returned having the experience of w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He had been poring over Japanese literatures in his middle school age, which was the study as an author. In the early age of that time, he had read Japanese popular novels and detective fictions. As his reader's interests was changed, he had read Japanese literary magazines, *Reorganization*(改造), *Central consensus*(中央公論). They had an existential effect upon him.

He worked as a teacher of Chungjin girls' middle school after the Liberation and crossed over the 38th Parallel into South Korea in 1947. He began to write an etude. He made his debut in letters after publishing

'Yohan's Poetical works(요한시집)' in 1955. It had a tendency of existentialism. 'The environs of the date line' was published on *Modern Literature*(현대문학) in 1959. This showed same tendency, too.

It is the main plot of "The environs of the date line" that Hanji seeks for his father. Hanji's father was a farm servant. He raped his master's daughter. As the result of the case, Hanji was born but his mother committed suicide. Hanji's father denied him to be his son by erasing the record on the census registration. Hanji is in discord between the ways. One is leaving his father with father's admitting him as his son. The other is groping for new life way after disapproving their relation. The presentation of new life way in this drama is existential method, which is taking precedence over the essence. Hanji's father Lee Chiwoo makes a plan to kill Hanji. But his daughter Ran meets Hanji by chance and feels love on him. Then they are falling in love. He knows their relationship but makes her his woman when he knows his father's plan. It is the new life way that they want to seek for. But their try is in the face of ruin when Ran's mother Kim divulge the relationship between Hanji and Lee Chiwoo. Ran kills herself and Lee murder Hanji, and also died by accident. Then Lee's other son Lee Mookie dies by a fire. On the result, the choice of them bring about virulent collapse upon themselves.

The new life way is related very intimately with the social environments in 1950s. After the Korean War, the collapse of the ready made valuation leads to great confusion among Korean people. They seek for existential choice to overcome these confusions. But their incest is too private and fundamental to arrive at the responsibilities of existentialism. When we recognize the relation between existentialism and humanism that one completes oneself to look for extrinsic aims, their choice is impossible to

be realized.

The cause of these limits result from Anti-Communism. As they were very considerable idea under the atmosphere at that time, the seek for new life way is the criticism over social conditions and the desire for new world. Then these struggles give rise to political participation in 1960s. "The environs of the date line" performs the role of connection between 1950s and 1960s.